코로나에도 풍성한 한가위 스포츠 …안방에서 즐기세요

씨름·야구·축구 무관중 경기
추석장사대회 29일 영월서 개막
프로야구 KIA, 두산과 3연전
류현진·김광현 PS 동반 출격
황희찬·이강인도 득점포 조준

30일 시작되는 올해 추석 명절 연휴에도 어김없이 국내외 스포츠 행사들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민족의 대이동'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인 만큼 집에서 TV로 스포츠 중계를 보며 연휴를 보내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현명한 '연휴 계획'일 수 있다.

류현진

국내에서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민속 씨름과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안방 팬들을 찾아간다.

순위 싸움이 한창인 프로야구에서는 3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kt wiz와 LG 트윈스가 10월 2일부터 수원에서 사흘간 더블헤더 포함 4연전을 치른다.

28일 현재 3위 kt는 66승 1무 50패로 4위 LG(65승 3무 51패)에 1게임 차로 앞섰다. 맞대결 성적에서는 LG가 6승 5패로 우위다.

최하위 한화 이글스에 연이어 덜미를 잡히며 위기에 빠진 5위 두산 베어스는 29일부터 대전에서 한화와 3연전을 벌인다.

두산은 6위 KIA 타이거즈에 1게임 차로 쫓기고 있다. 한화의 매운맛에 또 당하면 두산의 고통은 더 커진다.

두산은 한화와 3연전을 치른 뒤 10월 2~4일에는 잠실에서 KIA와 3번 연속 맞붙는다. 5위 자리의 주인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승부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은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가 승점 51로 같고 다득점으로 1, 2위가 나뉜 선두 경쟁이 치열하다.

울산은 10월 2일 상주와 만나고, 전북은 10월 3일 포항과 격돌한다.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더불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생존왕'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2연승을 노리고, 꼴찌로 추락한 부산 아이파크는 FC서울과 격돌해 최하위 탈출을 노린다.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씨름은 위더스제약 추석장사대회가 29일부터 강원도 영월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진다.

남자부 4개 체급과 여자부 3개 체급에 걸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 남자부 태백장사 결정전이 열리고 2일 금강장사, 3일 한라장사에 이어 4일 백두장사 결정전이 치러진다.

외국에서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유럽축구, 골프와 테니스 등 다양한 경기들이 열기를 내뿜는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은 30일 막을 올리는 포스트시즌의 첫 관문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현진의 첫 상대인 탬파베이 레이스는 최지만의 소속팀이라 한국인 메이저리거 투타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최지만은 지난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다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최근 수비 훈련까지 소화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포스트시즌 출전에 청신호를 켰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힘겹게 가을 잔치에 합류함에 따라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게 됐다.

김광현은 잭 플래허티, 애덤 웨인라이트를 잇는 팀의 3선발 투수로 빅리그 포스트시즌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세이셔널' 손흥민은 부상으로 올해 한가위 연휴에 출전이 어려워졌다.

손흥민은 27일 열린 뉴캐슬과 경기 도중 햄스트링을 다쳐 30일 열리는 첼시와 카라바오컵(리그컵) 16강에 출전할 수 없다.

손흥민은 10월 2일 마카비 하이파(이스라엘)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0월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도 결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황희찬(라이프치히), 이승우(신트트라위던), 이강인(발렌시아), 황의조(보르도)는 모두 10월 4일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숍라이트 클래식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는 한국 선수들이 '한가위 샷'을 준비하고 있고,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은 연휴 기간 내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스트로크 대결로 코트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당구(PBA)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무관중으로 'TS샴푸 PBA-LPBA 챔피언십 2020'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LPBA 무대에 데뷔하는 한국 아마추어 여자 당구 3쿠션의 최강자 김민아가 프로에서 어떤 성적을 남길지가 관심사다. /연합뉴스

'2020 설날장사 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영암군 민속씨름단 장성우가 김진(증평군청)을 3-2로 꺾고 백두장사에 등극했다. 〈영암군 제공〉

2020-2021 분데스리가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레버쿠젠의 찰스 아란히스와 볼을 다투고 있는 라이프치히 황희찬. /연합뉴스

살인일정에 쓰러진 손흥민…햄스트링 부상 '날벼락'

장기결장 우려…토트넘 비상

9월에만 4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뒤 5경기째 연속 선발로 나선 손흥민(토트넘)이 전반전만 뛰고 교체된 이유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으로 밝혀졌다. 토트넘은 비상이 걸렸다.

손흥민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전반 중반 두 차례나 골대를 강타하는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고, 전반 25분에 터진 루카스 모라의 선제골의 시발점이 되는 패스를 내주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아쉽게도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동점 골을 내주며 1-1로 비겼다.

조제 모리뉴 감독은 전반전이 끝난 뒤 손흥민을 빼고 스티븐 베르흐바인을 교체 선수로 투입했다.

30일 치러지는 첼시와 2020-2021 카라바오컵(리그컵) 16강전에 대비한 체력 안배로 이해됐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의 교체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햄스트링 부상이었다.

모리뉴 감독은 경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이다. 잠시 팀을 떠나 있어야 한다(It's an injury. We'll have him out for a while. It's his hamstring)"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햄스트링 부상은 회복에 최소 3~4주의 시간이 필요해 자칫 손흥민은 10월 내내 그라운드를 떠나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손흥민은 뉴캐슬전 직전까지 지난 14일 EPL 개막전을 시작으로 18일 불가리아 원정으로 치러진 로코모티프 플로브디프와 UEFA 유로파리그 2차 예선, 20일 사우샘프턴과 EPL 2라운드, 25일 북마케도니아 원정으로 열린 KF스켄디야와 유로파리그 3차 예선까지 4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다.

이들 4경기에서 손흥민은 5골 2도움(EPL 4골·유로파리그 1골 2도움)을 몰아치는 맹활약을 펼쳤고, 매 경기 엄청난 스피드의 스프린트를 펼쳐 보였다.

특히 모리뉴 감독은 스켄디야전에서 손흥민의 체력을 걱정하면서 벤치에서 "뛰지 말고 걸어(Stop Running)", "그냥 있어(Stay)"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결국 9월 들어 5번째 경기에도 선발로 출전했지만 끝내 햄스트링 부상을 떠안고 그라운드를 잠시 떠나게 됐다. 그가 최근 5경기 동안 뛴 시간은 총 405분에 달했다.

당장 30일 첼시와 카라바오컵 16강전을 비롯해 10월 2일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0월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EPL 4라운드까지 일정이 빡빡한 토트넘으로선 손흥민의 부재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우즈 메이저 14승 퍼터 복제품 1억8천만원에 팔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메이저대회 14승을 이끈 퍼터의 진품도 아닌 복제품이 2억원 가까운 금액에 팔렸다.

28일(한국시간) 골프닷컴에 따르면 골프용품 전문 경매 업체인 골든 에이지 옥션에 등장한 '스카티 캐머런 뉴포트2' 퍼터가 15만4928달러(약 1억8186만원)에 낙찰됐다.

경매 사상 퍼터 낙찰가로는 최고 기록이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이 퍼터는 우즈가 우승한 14개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사용한 퍼터와 똑같이 만든 '쌍둥이 제품'이다. 우즈의 요구에 맞춰 제작했다. 우즈가 실제 쓰는 퍼터처럼 핑 그립을 끼웠고 우즈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즈가 사용했던 퍼터는 아니다.

이렇게 우즈가 사용하는 퍼터와 똑같이 만든 쌍둥이 복제품도 흔한 물건은 아니지만 더러 경매에 나온다.

1년 전에는 같은 제품이긴 해도 세부적으로는 진품보다 다소 떨어지는 퍼터가 8만8000 달러(약 1억원)에 팔린 적이 있다.

우즈의 진품 퍼터.

우즈가 실제로 경기에 사용한 퍼터가 만약 경매에 나온다면 300만 달러(약 35억원)에서 500만 달러(약 58억6900만원)에 팔릴 것이라고 골든 에이지 옥션은 전망했다.

한편 타이거 우즈 재단은 21개 품목을 자체 자선 경매에 내놔 13만 달러(약 1억5000만원)를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